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6.50원 하락한 1,123.70원에 마감

18일 환율은 전일대비 6.50원 하락한 1,123.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70원 하락한 1,122.50원에 개장했다. 비둘기파적 FOMC 결과에 갭다운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낙폭을 확대하며 1,121.30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하였으나 수급상 결제수요 우위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시장의 위험선호분위기가 이어지며 1,120원대 초중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 전일대비 6.50원 하락한 1,123.7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31.92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22.50	1125.60	1121.30	1123.70	1123.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4.60	1034.60	1027.62	1030.25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3.58	1354.80	1337.65	1338.6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6	-0.91	-1.81	-3.47
	결제환율(수입)	0.15	0.16	0.04	-0.3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미국채 금리 상승 재개에 위험선호심리 훼손...1,12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23.70원) 대비 4.25원 상승한 1,127.8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가 재급등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비둘기파적인 FOMC결과를 확인하며 안정되는 듯 보였던 미 금리가 하루만에 상승세를 재개하였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1.75%대까지 고점을 높이며 작년 1월 2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연준의 비둘기파적 발언에도 시장에 연준의 인플레이션 용인 우려가 부상하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되었다. 이에 위험자산 선호심리 훼손되며 환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잇따르는 중공업 수주를 비롯한 이월네고 및 상단대기 매도물량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5.33 ~ 1132.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823.1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25원 ↑
	■ 美 다우지수 : 32862.3, -153.07p(-0.4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1.5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42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